

##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

-현대문학연구자의 성별 및 세대 별 김윤식 저술  
인용 양상 연구(2004-2019)-

최진석<sup>\*</sup> · 김병준<sup>\*\*</sup> · 허예슬<sup>\*\*\*</sup> · 최주찬<sup>\*\*\*\*</sup> · 황호덕<sup>\*\*\*\*\*</sup>

### 〈목 차〉

1. 서론: 김윤식은 무엇의 이름인가
2. 김윤식 저술의 피인용 네트워크 : 데이터와 휴먼 라벨링
3. 김윤식 읽기의 데이터적 양상: 어떤 책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4. 김윤식 인용의 세대 및 성별 요인: 누가 인용하는가, 인용과 차이
5. 차후의 과제: 현대문학 학술장의 성좌 그리기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김윤식 저술이 현대문학 분야의 논문에서 어떻게 인용 및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국문학자 김윤식의 학술적 업적에 대한 검토는 현대문학 학술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작업이지만, 그간의 연구에서는 주로 김윤식의 개별 저작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김윤식에 대해 접근해왔다. 이 논문은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들에 대한 세 가지 지점을 검토함으로써 김윤식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문학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

\* 공동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gkman1@hanmail.net

\*\* 공동 제1저자.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 연구조교수. kuntakim88@gmail.com

\*\*\* 제2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yeseul-huh@daum.net

\*\*\*\* 제2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cjc2851@naver.com

\*\*\*\*\* 교신 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hodukhwang@skku.edu

면 저술이 주로 인용되었는가, 누가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했는가, 그리고 김윤식의 저술은 어떻게 인용되었는가.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간행된 현대문학 유관 학술지 38종의 현대문학 관련 논문들의 참고문헌 서지를 데이터로 구축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윤식의 저작 중에서는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이광수와 그의 시대』 등 1970,80년대의 저작이 주로 인용되었다. 둘째, 젊은 세대의 연구자일수록 김윤식의 저술을 더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1960년대생 연구자들만은 예외적으로 김윤식의 저술을 적게 인용하였다. 셋째, 서울대 출신 연구자이거나 남성 연구자일수록 김윤식의 저술을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 연구자들의 김윤식 인용 빈도는 2015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

[주제어] 김윤식, 현대문학, 학술사, 디지털인문학, 카이제곱검정, KCI

## 1. 서론: 김윤식은 무엇의 이름인가

김윤식은 『백철 연구』(2008)의 후일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글에서 백철이 자신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류에 속하는 인물’, 곧 ‘영문학이나 학술 이론에 대한 소양이 없으면서도’ ‘한없이 지루한 글쓰기, 참을 수 없이 조급한 글쓰기’를 거듭했던 문학자 겸 문학 선생 같은 표현은 백철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일 뿐만 아니라 김윤식 스스로의 일생에 대한 자평이기도 했다.<sup>1)</sup> 물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김윤식 자신이 지적한 바 ‘2류의 문학자 겸 문학교사’ 백철은 애초에 국학(國學)일 수 없었던 한국(현대)문학이 국어국문학과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한, 현대문학 분야의 설계자이기도 했다.<sup>2)</sup>

백철의 뒤를 따른 현대문학 연구자가 김윤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 유독 김윤식의 이름을 각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김윤식’이라는 연구자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김윤식은 외국문학 전

1) 김윤식, 「한없이 지루한 글쓰기, 참을 수 없이 조급한 글쓰기: 『백철 연구』의 경우」,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 푸른사상, 2014, 142~143쪽.

2) 김윤식, 『백철 연구: 한없이 지루한 글쓰기, 참을 수 없이 조급한 글쓰기』, 소명출판, 2008, 6쪽.

공자들이 한국현대문학 비평의 주도권을 쥐던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근현대문학을 연구해왔던 연구자였고, 창작을 겸했던 문인 교수들과 비교할 때 전업 연구자에 가까운 인물이기도 했다.<sup>3)</sup> 그런 의미에서 김윤식은 오늘날 이해되는 ‘현대문학 연구자’의 원형이기도 하다. 김윤식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스승이고자 하지 않았”<sup>4)</sup>지만,<sup>4)</sup>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란 ‘비(非)김윤식일 수 없는 자’였던 까닭이다.<sup>5)</sup>

김윤식의 저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후반 무렵부터이니,<sup>6)</sup> 김윤식은 생전에 이미 ‘동시대의 학자’가 아닌 문학사/학술사의 일부가 되었던 셈이다.<sup>7)</sup> 김윤식의 저술 활동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던 것은 2010년대

- 3) 조남현, 「한국현대문학연구의 발전과 과제」, 『국어국문학』 184, 국어국문학회, 2018, 41~42쪽.
- 4) 서영체, 「커다란 너털웃음도 따뜻한 미소도 아닌」, 『문학동네』 98, 문학동네, 2019, 365쪽.
- 5) 황호덕, 「김윤식의 문학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론과 젠더 트리블: 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살마리로」,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152쪽.
- 6) 이러한 기준을 따를다면 최초의 ‘김윤식 연구’는 임진영(2009)의 논문이며, 그 뒤를 윤영실(2009), 김동식(2012), 장문석(2013) 등이 따른다. 김동식, 「비평사의 유혹과 글쓰기의 이미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감상」, 『쉬플레땅상허』, 상허학회, 2012; 윤영실, 「일제말기 이중어 글쓰기와 탈식민·탈민족의 아포리아: 김윤식의 이중어글쓰기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이도연, 「비평사의 연구 방법과 과제: 김윤식의 비평사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임진영, 「작가연구의 대상과 방법 문제: 김윤식의 작가연구를 중심으로 한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장문석, 「상흔과 극복: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연구』 5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장문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의 학술사적 의의를 묻다」,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황호덕, 「김윤식 비평과 문학사론: 총체성과 가치중립성 사이」,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 7) 김윤식에 대한 연구는 김윤식의 사망(2018) 이후 구보학회 등 여러 학회들을 통해 전개되었다. 특히 『구보학보』는 2019년 봄호(22호)의 특집 ‘김윤식을 읽는다’를 통해 김윤식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명하였다. 『구보학보』에 수록되었던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경수, 「김윤식의 『김동인 연구』가 놓인 자리」,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김동식, 「낭만주의·경성제국대학·이중어 글쓰기: 김윤식의 최재서 연구에 대한 몇 개의 주석」,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김민수, 「‘문학’에서 ‘글쓰기’로: 김윤식의 ‘글쓰기론 3부작’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김예리, 「방법으로서의 이상: 김윤식의 이상 문학 연구에 대하여」,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문홍술, 「의미인의 문학사, 그 계계와 의의: 김윤식의 문학사 연구에 대하여」,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황호덕, 「김윤식의 문학의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와 젠더트리블: 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살마리로」,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그 외의 학술지를 통해 출간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용훈,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

들어 ‘국어국문학’이라는 학제의 이념과 제도의 형성 및 변동에 대한 검토가 국문학 연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김윤식의 저술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김윤식의 문학(사상)사론, 한국근대문학이라는 기획에 대한 연구를 택하고 있고, 김윤식의 작가론에 대한 연구 역시 김윤식이 개척했던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현대문학 연구자들은 김윤식의 학문적 영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김윤식이 “살아 있는 전설이었고, 또 계속 만들어지는 전설”이었다면,<sup>8)</sup> 연구자들의 과제는 그 소문과 전설을 해명하여 그 이름값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인용과 피인용의 관계로 맺어지는 현대문학 학지(學知)의 유통 네트워크 속에서 김윤식이라는 이름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가.

물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김윤식의 영향력에 대한 완벽한, 혹은 ‘온전한’ 이해를 도출하겠다는 데 있지 않다. 이 연구는 김윤식의 저술을 둘러싼 학술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속성의 한 단면을 확인할 뿐이다. 우리로서는 김윤식을 둘러싼 소문에 불과했던 영역을 구체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새로 확인된 사실들을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의 기초를 놓고 싶을 따름이다. 김윤식 저술의 학술적 궤적, 혹은 김윤식이 생신했던 학지(學知)의 수용시를 검토하는 작업은 단순히 김윤식의 학문적 권위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김윤식을 중심축으로 하여 발전하고 확장되어 왔던 현대문학 학술장의 궤적을 확인하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 2. 김윤식 저술의 피인용 네트워크 : 데이터와 휴먼 라벨링

황호덕은 1991-2011년 사이에 시도된 한국문학연구의 ‘이론적 프레임 워크’

---

의 변화 양상과 또 다른 문학/비평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 72,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신재기, 「김윤식의 수필론 연구」, 『국학연구론총』 24, 택민국학연구원, 2019; 전철희, 「운명과의 만남: 김윤식의 임화론에 대한 몇 가지 주석」, 『동아시아 문화연구』 7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전철희, 「식민지 사상의 (불)가능성: 김윤식의 사상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76, 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최현희, 「사상의 통국가성: 2000년대 이후 김윤식의 한국근대문학론」,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8) 서영채, 「커다란 너털웃음도 따뜻한 미소도 아닌」, 『문학동네』 98, 문학동네, 2019, 368쪽.

를 조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족문학사연구』와 『상허학보』 두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참고문헌들을 조사한 바 있다.<sup>9)</sup> 그에 따르면 두 학술지에 같은 기간 실린 총 835편의 논문 중 206편이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김윤식은 “외국인을 포함해 그 어떤 다른 저자들보다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였다.<sup>10)</sup> 하지만 현재 KCI 등재지 중 한국어문학 분야로 분류된 학술지는 총 132종이며, 그중 현대문학분과에 특화된 학술지만 해도 3,40종에 육박한다. 김윤식의 연구가 국문학계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면 결국 이 학술지들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시기상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한 2010년대는 국문학 분야에서도 문화 연구, 페미니즘 연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백철, 김윤식 등에 의해 설계되고 구획되었던 ‘현대문학분과’의 영역을 초과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된 것이 2010년대 이후의 국문학계 흐름 중 하나였던 이상, 김윤식의 영향력 자체가 그 이전에 비해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연구 대상이 되는 학술지와 시기를 확대하여 다시 검토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가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 및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론은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다. 디지털인문학은 비교적 최근에야 한국 인문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조류이지만, 그럼에도 학술장의 중장기적 변동이나 학술사회의 대명제나 통념을 검증하는 인상적인 성과들을 제출해왔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은 논문 서지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학계의 동향이나 학술지의 연혁을 점검하고자 한 연구들이다.<sup>11)</sup>

9)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지도·수형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10) 황호덕, 「김윤식 비평과 문학사론, 총체성과 가치중립성 사이: 신비평에서 루카치로의 행로」,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93쪽.

11) 김병준·천정환, 「박사학위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김용수, 「한국 영문학 비평 이론의 지형도: 인용문헌 연결망 분석과 <비평과 이론>의 20년(1996~2015)」, 『비평과 이론』 27-1, 한국비평이론학회, 2022;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 연구』 48, 한국여성문학회, 2019; 이제연, 「논문 제목과 주제어의 공기어 네트워크로 본 『상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위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전수 데이터에 비교적 근접한 대량의 논문과 참고문헌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최소한 3,40종에 걸친 학술지들의 참고문헌을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일 수밖에 없지만, KCI에 구축되어 있는 서지 정보 API의 데이터를 웹스크래핑(크롤링) 방식으로 획득함으로써 그러한 작업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연구자(김윤식)의 인용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현대문학 분과를 중심으로 국문학 학술장을 분석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 연구자의 저술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려 한 사례가 없으며, 국외에도 미셸 푸코 등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sup>12)</sup> 어떤 의미에서 본 연구는 김윤식이라는 예외적인 개인이 있기에 가능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셋째, 단순히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의 서지만이 아니라 해당 논문들의 저자(연구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정보까지 확보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디지털인문학의 핵심적 역량 중 하나는 복잡다양한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여러 데이터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수월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 혹은 인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정(test)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작업들이 자동화 코드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처리되었던 것은 아니다. 수집된 정보 중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전수조사하여 손질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먼 라벨링(human labeling) 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로는 볼 수 없는 인용 패턴을 섬세하게 포착해낼 수 있었다.

재차 언급하지만 본 연구는 디지털인문학의 방법론을 통해 김윤식을 둘러싼 학술적,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1차 자료라 할 수 있는 KCI 제공 인용 데이터 자체

---

12) Cronin, B., & Meho, L. I. "Receiving the French: A bibliometric snapshot of the impact of 'French theory' on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5(4), 2009; Dewey, S. H. "Foucault's toolbox: Use of Foucault's writings in LIS journal literature, 1990–2016." *Journal of Documentation*, 76(3), 2020.

가 구축 자체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구축은 2008년부터야 시작된 까닭이다. 차후 본 연구 이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로우(raw) 데이터의 품질 문제와는 별도로, 본 연구의 근본 지향은 김윤식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근현대문학 연구라는 문학적·학술적 현상의 단면들을 드러내는 데에 있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 2.1. 데이터 수집 및 선정

우리의 연구는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김윤식의 저술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인용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1) ‘한국 현대문학 관련 학술지’의 선별, 2) 해당 학술지들이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수록된 현대문학 관련 정규논문의 추출, 3)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학술지 및 논문의 서지 정보나 참고문헌 목록은 KCI에서 오픈 API<sup>13)</sup>를 통해 웹 스크래핑(크롤링)하는 방식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디룰 ‘한국 현대문학 유관 학술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현대문학분과 혹은 현대문학 연구의 영역을 어떻게 구획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일단은 이 연구가 일종의 시론(試論)적 사례 연구이자 시계열적 추세를 확인하는 연구임을 감안하여 ‘현대문학 유관 학술지’의 기준을 가능한 한 좁혀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문예지, 한국 현대문학 관련 논문을 수록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제적 성격을 갖는 학술지들 역시 제외하였다. 한국 연극·영화 관련 학술지나 대중문화 및 서사 관련 학술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의 문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고민시킨 문제였으나 역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문학 관련 학술지 38종을 확정하였다.<sup>14)</sup>

13) <https://www.kci.go.kr/kciportal/po/openapi/openApiList.kci>

14) 수집 대상은 다음과 같다. 『겨레어문학』(329편), 『구보학보』(201편), 『국문학연구』(268편), 『국어국문학』(700편), 『국어문학』(426편), 『국제어문』(701편), 『돈암어문학』(154편), 『동남어문논집』(254편), 『동악어문학』(322편), 『민족문학사연구』(643편), 『반교어문연구』(440편), 『배달말』(401편), 『비평과이론』(301편), 『비평문학』(698편), 『사이언스SAI』(192편), 『상허학보』(485편), 『아동청소년문학연구』(199편), 『어문론집』(674편), 『여성문학연구』(436편), 『우리말글』(723편), 『우리문학연구』(726편), 『우리어문연구』(755편), 『이화어문논집』(82편), 『청람어문교육』(550편), 『춘원연구학보』(91편), 『한국근대문학

이 38종의 학술지가 2004~2019년에 발행한 정규 논문 총 19,817편 중에 서도 국어학, 고전문학 관련 논문을 제외한 결과 — 각 논문의 제목, 초록, 주제어, 저자의 최종 학위논문에 표기된 전공 등을 참고했다 — 최종적으로 12,731편의 현대문학분과 논문이 선별되었다.<sup>15)</sup> 분석 대상 논문 12,731편 중에서 참고문헌에 국문학자 김윤식의 저술을 1건 이상 인용한 논문은 2,174 편으로, 분석 대상의 약 17%에 해당했다.

## 2.2. 기술 통계량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인용 패턴 분석

우선 기술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통해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하는 논문들의 패턴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 통계량이란 평균, 표준 편차, 시계열 트랜드 등 간단한 통계 기준을 통해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김윤식을 인용한 논문의 서지 정보에 대한 기술 통계량 분석이며, 둘째는 각 논문을 쓴 연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세대, 최종학위를 받은 학교, 성별)에 대한 분석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sup>16)</sup>을 통해 연구자의 인구사회학적 위치가 김윤식을 인용하는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독립성 검정(Test of independence)을 시행하였다. 아래 예시는 세대에 따른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 분할 빈도표(Contingency table)이다(<표 1>).

<표 1> 1960,70년대생 연구자들의 김윤식 저술 인용 여부 분할 빈도표

세대	김윤식 비인용	김윤식 인용
1960년대생	3,645	640
1970년대생	3,593	811

연구』(384편), 『한국문예비평연구』(640편), 『한국문학논총』(630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976편), 『한국민족문화』(597편), 『한국언어문화』(953편), 『한국언어문화』(612편), 『한국현대문학연구』(659편), 『한민족문화연구』(686편),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화)』(665편), 『현대문학의 연구』(566편), 『현대문학이론연구』(893편), 『현대소설연구』(805편).  
 15) 최종 선별 논문 목록 및 각종 연구 결과와 분석 코드는 모두 다음의 깃허브(github) 링크에 업로드했다. <https://github.com/ByungjunKim/CRKMLS>

16) 카이제곱 검정은 인문학 연구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통계적 가설 검정법이지만, 국어학이나 언어학 연구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장충덕, 「청주지역어 체언 어간말 자음 교체의 사회적 변이」,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2015, 258쪽.

이 표가 보여주듯 단순히 특정 세대 연구자들 중에서 김윤식의 논저를 활용한 연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정보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연구자의 세대에 따라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독립적인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통계적 가설 검정법에서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개념이 필요하다.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이란 연구자가 설계 한 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이며,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 연구자가 검증하려는 가설이다. 위 예시 빈도표의 귀무가설( $H_0$ )과 대립가설( $H_1$ )은 다음과 같다.

$H_0$  = 연구자의 세대에 따른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가 서로 독립이다.

$H_1$  = 연구자의 세대에 따른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가 서로 독립이 아니다.

만약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면 위 예시표에서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세대 차이가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와 연관(독립이 아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예시에서는 단 두 개의 독립변수(1960년대생 vs 1970년대생)만 주어졌기 때문에 두 세대에 따른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3개 이상의 독립변수(예: 1940-1980년대생)에 따른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종속변수)를 검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세대끼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때는 사후 검정(Post-hoc)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sup>17)</sup>을 활용해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두 세대씩 짹을 지어 확인하였다.

---

17) Weisstein, E. W. (2004). Bonferroni correction. <https://mathworld.wolfram.com/>. 본페로니 교정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고. 유현재 · 김현우, 「조선후기 서울 주택가격 변동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 3. 김윤식 읽기의 데이터적 양상: 어떤 책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 3.1. 무엇을 인용하는가: 김윤식 저술의 피인용 트렌드

이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첫째, 기술 통계량 분석을 통해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에서의 김윤식의 비중 변화를 추적한다. 둘째, 김윤식 저술 인용 라벨링 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장에서 김윤식의 인용 패턴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방대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해진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 KCI에서 논문 인용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이다.<sup>18)</sup> 인용 양식의 제도화를 매개로 하여 2008년경부터 인용/피인용을 통한 학술적 영향의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가시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 연구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식의 검증부터 해보기로 했다.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술지 132 종이 2004~2019년 사이에 발행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들은 누구 인기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물론 이러한 기계적인 방식은 동명이인인 저자의 문헌이 인용된 경우나 공저자가 있는 문헌도 모두 ‘김윤식’의 논저에 대한 반응으로 합산할 가능성이 있다.<sup>19)</sup> 하지만 그러한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대체적인 피인용 경향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문학 연구자 중에는 김윤식의 동명이인이 없고, 현대문학분과에서 제출된 논문이 김윤식과 동명이인인 저자의 저술을 1차 텍스트로서 활용한 경우도 단 두 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sup>20)</sup>

18)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에 “참고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 항목을 배당(신규평가의 경우 5점, 계속평가의 경우 10점)함으로써 각 학술지 및 저자들에게 서지사항의 완비를 요구해왔다. 백종섭·박병식·김태수, 『국내외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43~44쪽.

19) 예를 들어 <표 3>은 김윤식이 김현과 공저한 『한국문학사』나 정호웅과 공저한 『한국소설사』가 인용된 경우도 김윤식의 피인용수로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다. 다만 동명이인의 저술이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20) 구한말의 정치인 윤양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이 1건, 그리고 김영랑의 시집을 인용하면서 저자 이름을 김영랑의 본명인 김윤식으로 표기한 논문이 1건이었다.

〈표 2〉 현대문학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들

연번	인명	피인용수
1	김윤식	3,096
2	권영민	962
3	김재용	847
4	이광수	807
5	권보드래	728
6	김현	727
7	최인훈	717
8	이청준	640
9	천정환	621
10	이재선	565

〈표 2〉에 따르면 김윤식은 피인용수 2위에 등재된 권영민의 3배, 그리고 작가 이광수의 4배 가까이 인용된 저자였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근현대문학 학지의 유통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저자인 셈이다. 물론 피인용수의 규모만으로 특정 학자나 작가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최인훈이 이청준보다 더 자주 인용된 작가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여 최인훈이 이청준보다 더 ‘중요한’ 작가였다는 식의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3,096건의 피인용수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숫자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해석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 3,096 건 중에서도 동명이인의 저술을 인용한 두 건을 제외한 3,094건을 1차 텍스트로 삼았다.

우선 우리가 수행할 작업은 김윤식 저술의 인용 내력에 대한 분석에 앞서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림 1〉, 〈그림 2〉는 KC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문학 분야 학술지 38종이 매년 출간한 논문의 수, 그리고 이 논문들의 평균 참고문헌 수를 기록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2004-2008년 구간은 제외하고 2008-2019년의 구간을 보면, 현대문학 관련 학술지에서 생산되는 현대문학 관련 논문의 양과 각 논문의 평균 참고문헌 수 모두 — 2016년에 현대문학 관련 논문의 양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을 예외로 둔다

면 —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 KCI에서 인용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므로, 2004-2008년 구간에는 아직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KCI 체제 등장 이후 각주를 통한 ‘인용’이라는 양식에 익숙해졌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RISS, KISS, DBpia 등 학술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술 논문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한편, 피어 리뷰의 제도화에 따른 객관화된 논증의 부담으로 인해서 평균 참고문헌 수가 자연스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참고문헌의 증가가 학술 논문의 중요성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문학 관련 논문의 참고문헌(318,928건)에서 단행본의 비중이 줄고 학술지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 의하면 2008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문학 관련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단행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약 48%로 17%p 감소했고, 같은 기간 소논문의 비중은 약 22%에서 약 38%로 16%p 증가했다. 학위논문, 기타 자료 등 여타 자료의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단행본의 영향력 감소가 곧바로 소논문의 영향력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현대문학분과에서 제출되는 소논문의 주요 참고문헌이 단행본에서 소논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윤식의 저술 활동은 대부분 단행본 출간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현재 김윤식의 저술 중에서 단행본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sup>21)</sup> 김윤식의 주요 저술이 주로 단행본이

21) 논문 및 평론을 포함한 김윤식 전작의 목록에 대한 정리는『김윤식 선집』6권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당시 기준으로도 김윤식의 논문과 평론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었다. 장문석이『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1973)을 대상으로 수록 개별 논문들의 초출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필 시기와 수록 순서를 꼼꼼하게 분석한 바를 상기한다면, (본 논문에서 상론할 바는 아니지만) 김윤식 사상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논문 및 평론의 발표 시기를 실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장문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의 학술사적 의의를 묻다』,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참조). 이 문제는 본 연구의 수행에도 다소의 곤란을 야기했다. 왜냐하면 각 학술지의 편집 지침 차이(특히 제목의 한자 표기 문제)나 저자의 실수로 인해 동일한 자료를 다르게 표기한 자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 2,174편의 서지사항을 전수조사하여 서지사항 표기를 정정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정정에 참고할 김윤식 저술 총목록이 따로 있지는 않았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국가서지

라는 것은 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대문학 분야 논문에 활용된 김윤식의 저술 역시 단행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sup>22)</sup> 그렇다면 연구자들의 단행본 활용 빈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김윤식의 저술 인용 빈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표 3> 현대문학 분야 논문에서 인용된 김윤식 저술의 종류

구분	빈도	비율
단행본	2,540	82.1%
논문·기사	381	12.3%
편저	106	3.4%
작품 해설	48	1.6%
교과서	19	0.6%
총합	3,094	

우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제출된 현대문학 분야 소논문에서 우선 김윤식의 저술을 얼마나 인용해왔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했다. 확인하고자 한 사항은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들이 김윤식의 저술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고 있는가(빈도수), 그리고 김윤식의 저술을 활용한 논문이 현대문학 분야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이다. <그림 4>가 그 결과인데, 이 그림에서 파란 막대는 중복인용을 포함한 인용 빈도이다. 한편 빨간 막대는 한편의 논문에서 김윤식의 여러 저술을 인용하더라도 인용 빈도를 1회로 처리한 중복 미포함 빈도수이다. 두 가지 기준 모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큰 추세로 볼 때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19년에 중복을 포함한 빈도수가 반짝 상승한 것은 김윤식 사후에 여러 학술지에서 김윤식의 연구를 조망하는 연구

LOD 서비스(<https://lod.nl.go.kr/>), 『김윤식 서문집』의 부록인 「김윤식 저서·역서 목록 1973~2016」 등 목록이 부여한 일련번호들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22) 이것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다른 학자들과의 편저나 (다른 작가의 단행본 뒤에 실린) 작품 해설, 김윤식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중등 교과서를 인용한 경우들이다. 어떻게 본다면 학자로서 본격적인 저술이라 보기 어려울 작품 해설이나 교과서까지 인용된 경우가 도합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김윤식 수용사’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국어 교육이나 국민·시민 교양의 문제를 검토하는 글들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는다.

를 계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매년 김윤식의 저술을 1건이라도 인용한 논문의 비율은 2008년에 약 22%에서 중간에 부침을 거듭하다가 2019년에는 약 17%로 5%p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림 4>의 결과만으로는 ‘김윤식의 학술적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의 비율이 소폭 하락(-5%p)하였다지만, 그 감소 폭은 같은 기간 단행본의 영향력 저하(-17%p)에 비해서는 오히려 매우 완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들이 점점 더 학술서를 인용하지 않게 되어가는 와중에도 김윤식의 단행본만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윤식에 한해서 보자면 단행본 저작 중심 문학 연구의 틀을 그의 책들이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김윤식의 저술 중 인용 빈도 50건 이상의 저술 11권을 도출하였다(<표 4>).<sup>23)</sup> 이 가운데에는 『한국문학사』(김현과의 공저)나 『한국소설사』(정호옹과의 공저)과 같은 공저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단독 저술이 높은 인용 빈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11권의 총 인용 횟수는 1,218회로 전체의 약 39%(1,218/3,094)를 차지한다. 단행본의 인용 횟수 총합(2,540)을 분모로 하면 이는 약 48%(1,218/2,540)에 달한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151종의 단행본 중에 단 11개의 단행본이 인용 횟수로는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특정 저자의 전체 저술 중에서도 소수의 저술이 인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 자체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각각의 작가일수록 대표작은 분명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김윤식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소수의 저술에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완만하다고 할 수도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통계적으로 볼 때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지프의 법칙(Zipf's law) 및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 등을 통해 정리된 바 있다.<sup>24)</sup> 김윤식 저술의 경우 상위 20%를 차지하는 30종의 저술이 총 단행본 인용 횟수의 약 71%(1796/2540)를 차지한다.

23) 다만 가장 많이 인용된 저술이 가장 중요한 저술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가령 『임화연구』의 경우 인용 빈도만 본다면 그리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화연구』는 1960년대생 국문학 연구자와 1970년대생 국문학 연구자의 학술적 관심사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논쟁적인’ 저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4) 지프의 법칙 및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는 Newman, M.E.J. “Power laws, Pareto distributions and Zipf's law,” *Contemporary Physics* 46, 2005 참조.

〈표 4〉 김윤식의 저술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술들

연번	저술	초출	분류	인용빈도	비고
1	한국소설사	1993	문학사	202	정호옹 공저
2	이광수와 그의 시대	1986	작가론	201	
3	한국문학사	1973	문학사	153	김현 공저
4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1973	문학사	145	
5	염상섭연구	1987	작가론	131	
6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2003	글쓰기	75	
7	한국근대문학사상사	1984	문학사	74	
8	임화연구	1989	작가론	70	
9	이상연구	1987	작가론	59	
10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1989	문학사	56	
11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1978	문학사	52	
합계				1,218	

〈표 4〉에 따르면 김윤식의 저술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한국소설사』였으며 그 뒤를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국문학사』,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염상섭 연구』 등이 뒤를 따랐다. 이 저술들은 연도별로 주요 저술의 비율을 확인해도 큰 기복 없이 꾸준히 인용된 저술들이었다(〈그림 5〉). 다만 특정 저술의 인용이 예외적으로 집중되는 시기는 있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염상섭연구』가, 2017년에는 『이광수와 그의 시대』에 대한 인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 『이광수와 그의 시대』 인용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은 그 해에 『무정』 출간 100주년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염상섭문장전집』(이혜령·한기형 편, 소명출판, 2013-2014) 및 연구서 간행 직후의 새로운 학술사적 조명이 2015년 전후의 『염상섭연구』 인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현, 정호옹 등 다른 학자들과의 공저인 저술을 제외한 9종은 작가론 4종, 문학사 4종, 글쓰기론 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종이 1980년대 중후반에 출간된 저술들이다. 1980년대 중후반은 김윤식의 대표작들이 집중적으로 출간된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김윤식의 첫 단행본인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가 가장 많이 인용된 저술 중 하나라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 3.2. 어떻게 인용하는가: 김윤식 저술 인용 라벨링 분석

물론 단순 인용 빈도수만으로 그 텍스트의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윤식 저술의 수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윤식의 저술이 각각의 논문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정도로 본격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시좌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시도를 해보기로 한다.

김윤식의 학계에서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상, 저자의 뚜렷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독’ 저술을 검토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순위권 내 단독 저술 중 성격이 겹치지 않는 세 저술을 샘플로 선정하여 실제 인용 패턴을 점검하였다. 작가론에서는 『이광수와 그의 시대』를, 문학사론에서는 김윤식의 첫 저서이기도 했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를, 그리고 퇴직 이후 김윤식이 시도한 ‘글쓰기론’ 중 하나인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을 선택했다.<sup>25)</sup>

엄밀히 말한다면 이러한 연구는 대표적 저술이 아닌 저술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 작품을 선택한 것은 김윤식의 저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김윤식의 저술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지점인가. 특정 작가나 작품, 혹은 문학사적 사건에 대한 김윤식의 해석인가, 김윤식이 여러 1차 자료에 기반하여 실증하고 확정한 ‘사실’들인가. 아니면 김윤식의 저술을 ‘언급’해둠으로써 자신이 김윤식의 저술을 간과하지는 않았음을 알리는 것인가. 김윤식의 주요 저술 세 편(『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을 검토한 것은 그러한 인용 패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을 한 번 이상 인용한 논문 총 399편을 추출하

---

25) 글쓰기론은 2001년 정년 이후의 김윤식에게 선택된 ‘말년의 양식’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김윤식이 종래의 ‘근대문학’ 관념만으로는 근대문학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택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문학사’ 서술 방법론이기도 하다. 김민수, 「문학」에서 ‘글쓰기’로: 김윤식의 ‘글쓰기론 3부작’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266쪽.

고, 각 논문에서 각 저술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분류하기로 했다. 분류 기준은 다음 세 가지였다.

견해 인용: 김윤식이 특정 인물, 작품, 사건 등에 대해 밝힌 주관적 견해나 해석을 인용한 경우

사실 인용: 김윤식이 특정 인물, 작품, 사건 등에 대해 밝힌 객관적 사실들을 인용한 경우(ex: 작가 출생연도)

기타: 김윤식의 저술 내 특정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서지사항만 기록한 경우(선행연구 검토 포함)

인용 양상의 검토를 위해 인용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0(견해), 1(사실), 2(기타)로 분류하여 라벨링(labeling)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윤식이 저술을 통해 확정한 ‘사실’(fact)을 활용한 경우에는 1번 라벨을 부여하고, 김윤식의 견해 및 해석을 인용(수용 및 비판)한 경우는 0번 라벨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용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정리, 서술하는 차원에서 김윤식의 저술을 단순 언급한 경우에는 2번 라벨을 부여하였다. 0번 라벨의 경우 ‘평가(혹평)’, ‘강조’, ‘분석’, ‘지적’, ‘해석’, ‘추측’, ‘문제제기’, ‘설명’ 등의 표현 등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이 작업은 연구자들의 상호 검토 및 합의를 통해 라벨링의 타당성을 높였다.

가장 높은 인용 빈도를 보인 『이광수와 그의 시대』의 라벨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 5〉 『이광수와 그의 시대』의 라벨링 예시

라벨	예시 인용문장
견해 (0)	“김윤식은 이 소설(「삼봉이네 집」: 인용자 주)이 무산계급혁명운동을 최종목표로 설정했다면, 삼봉의 투쟁은 중간단계로 ‘중단된 성장소설’쯤 된다고 해석한다.”
사실 (1)	“(이광수는: 인용자 주) 1910년 3월 귀국하여 정주 오산학교(五山學校)의 교원이 되었으나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평화를 찾기 위해 이주를 감행하였다.”
기타 (2)	“『무정』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광수 관련 논저는 일일이 예거하기 어려울 만큼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후 각주에서 김윤식의 저작을 비롯한 여러 저술 언급)

인용 라벨링 분석 전 가설은 김윤식의 견해 인용(0)이 사실 인용(1)보다 더 우세적이리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윤식이 과거의 저술들에서 수행했던 실증 작업 자체는 오늘날 시점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된 것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굳이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다면 그의 문학 연구자로서의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라 가정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김윤식의 주요 저작 세 편의 인용 라벨링 결과

저술	견해(0)	사실(1)	기타(2)	합계	(견해-사실)%p
이광수와 그의 시대	94(46.8%)	91(45.3%)	16(8%)	201	1.5%p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67(51.1%)	44(33.6%)	20(15.3%)	131	17.5%p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18(26.9%)	23(34.3%)	26(38.8%)	67	-7.4%p
합계	179(44.9%)	158(39.6%)	62(15.5%)	399	5.3%p

엄밀히 말하면 세 저술 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 저작 중에서 견해 인용(0)이 사실 인용(1)보다 명백하게 많이 이루어진 저작은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연구』뿐이었다는 것이다. 『이광수와 그의 시대』와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은 견해 인용과 사실 인용 간의 차이가 근소하거나 심지어 사실 인용이 견해 인용보다 더 많이 집계되기도 했다. 그것은 학계 내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와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독자들이 이 저작들에 기대하는 것은 주로 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역사적·전기적·문학적 ‘사실’에 대한 정보였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것은 문학사 서술에 임할 때 종종 사실 관계 확인이 불러일으키는 곤란이나 곤경을 떠올려본다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장 학계에서 카프 해산의 경위나 시기를 확정하는데만 해도 상당히 오랜 논의를 진행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사적 사실 관계에 관련된 신뢰 가능한 문헌을 확보하는 것은 문학사 연구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김윤식의 저술을 사실 관계에 대한 출전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광수와 그의 시대』의 사실 인용이 다른 저작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그만큼이나 『이광수와

그의 시대』가 권위 있는 이광수 연구로서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김윤식의 저술이 단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문헌으로 활용되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2008~2019년 사이 인용 라벨링의 변화는 견해 인용이 사실 인용의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림 6>). 하지만 특히 김윤식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출간되었던 2019년에는 견해 인용이 사실 인용의 2배에 달했다. 김윤식 자신의 대화적 저작이 보여주듯, 그는 ‘문학사가’이면서 또한 ‘비평가’로서 존재했고, 그의 저작 역시 그렇게 이 시대에 소환되고 있는 듯 보인다.

#### 4. 김윤식 인용의 세대 및 성별 요인: 누가 인용하는가, 인용과 차이

앞에서 우리는 김윤식의 저술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술들의 목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김윤식의 저술들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앞서 수행했던 인용 라벨링과 같은 분석을 통해 각 저작의 인용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인 작업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은 일단 후속 작업으로 미루어두고, 이 장에서는 김윤식의 저작을 주로 인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의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이는 김윤식 저술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김윤식 저술의 인용 양상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특정 학자의 저술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해당 저술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기보다는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단순히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하지 않은 연구자라 하여 김윤식의 저술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리라는 식의 쉬운 해석을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장에서는 카이제곱 검정과 사후 검정을 통해 연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가 김윤식의 인용 여부와 연관을 갖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즉 우리가 검토한 주요 변수는 세대, 성별의 두 가지였다.<sup>26)</sup>

#### 4.1. 세대: n86세대의 예외적 비인용

세대(generation)는 지식사회학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히곤 하지만,<sup>27)</sup>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논쟁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세대란 엄밀히 말하자면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특정한 역사 시기에 대응해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의미화하기 위한 용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 사회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 틀로서 세대 개념을 과용하는 것은 본래 연령대나 (한 세대가 공유한다고 상정되는) 문화적 정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기한 변수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2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세대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술장의 변동이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에 미친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1960년대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던 1980년대 말 및 1990년대 초는 87년 체제로의 이행, 월·납북 문인 해금 조치 등으로 인해 근대문학 연구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2020년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이른바 n86세대 연구자들에게 여타 세대와는 구별되는 강한 세대

26) 각 연구자가 최종 학위를 받은 학교가 어디냐의 문제, 즉 서울대 출신 연구자와 비서울대 출신 연구자의 김윤식 인용 빈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다. 비서울대 출신이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하는 비율은 약 13.7%임에 비해, 서울대 출신이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하는 비율은 약 30.0%이었다. 그리고 해당 빈도표를 기반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귀무 가설을 기각하였다( $\chi^2=284.78$ ,  $p\text{-value}=6.79e-64$ ,  $df=1$ ). 즉 서울대 졸업 여부가 김윤식 저술의 인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표 7> 서울대/비서울대 출신 연구자의 김윤식 인용 빈도

출신 대학	김윤식_비인용	김윤식_인용	합계	김윤식 인용 비중
비서울대	9,422	1,491	10,913	13.7%
서울대	1,135	488	1,623	30.0%
합계	10,557	1,979	12,536	15.9%

다만 학술 인용 네트워크가 학교 등의 인맥에 영향받는다는 것 자체는 분야를 불문하고 확인되는 현상으로, 이 현상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김용진·김영석, 「한국 언론학 분야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보』 52-1, 한국언론학회, 2008). 그렇기에 이 논문에서는 <표 7>에서 수행한 분석 이상의 구체적인 분석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27) 카를 만하임, 이남석 역, 『세대 문제』, 책세상, 2013.

28) 권수빈, 「청년세대 연구에 지역이라는 교차로 놓기: '지방대학생/지방청년'에 관한 학술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7-4,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58쪽.

내 결집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sup>29)</sup> n86세대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근대문예비평사연구』나 『이광수와 그의 시대』 같은 1970,80년대 김윤식의 저술을 읽으면서 근대문학에 대해 공부했으나, 그 자신들은 프로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과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자신들이 배웠던 식민지 시대 문학의 초상을 완전히 새롭게 개신하고자 했던 세대이다.

1980년대생, 곧 ‘00년대 학번’은 한국문학 학술장 전반에서 일종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곧 소위 ‘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가 대대적인 자기 갠신을 해나가던 상황 속에서 학계에 진입한 세대에 속한다. 즉 이들이 학계에 진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이후 현대문학 연구의 중심축은 시간적으로는 식민지시대에서 해방 이후로, 범위 면에서는 문학사와 정전적 텍스트에서 비(非)정전적 텍스트로 이동해나갔다.<sup>30)</sup> 말하자면 1980년대생들은 현대문학분과라는 제도가 김윤식 세대나 그 이후의 n86세대 연구자들이 구축했던 ‘근대문학 연구’의 영역을 초과하는 문학적·문화적 현상들을 제도 안으로 흡수해나가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세대이다. 그렇다면 종래에 김윤식이 국문학 연구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위상은 1980년대생 연구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을까.

일단 본 연구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의 세대에 따른 분화를 김윤식 저술의 인용과 연동해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세대별 분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한 변수는 출생 연도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앞서 검토했던 38종 학술지에 현대문학 관련 논문을 수록했던 ‘현대문학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의 출생 연도나 최종학위 학교에 대한 정보는 한국연구자 정보(KRI)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다만 개중에는 연구자들이 KRI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출생 연도에 대한 분석은 11,138건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는 세대별 논문 게재량과 세대별 김윤식 인용 비율을 비교 정리하였다.

29) 이원재·김병준, 「20대와 50대의 단절과 전승: 1980~2019 한국의 현대문학 연구 텍스트 분석」,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6~24, 2020, 22쪽.

30) 장세진, 「냉전(사)의 세계 시간과 지금·여기의 문학연구: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발(發) ‘냉전문화’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107~108쪽.

〈표 8〉 세대별 김윤식 저술 인용 여부 분할 빈도표

세대	계재량(비율)	김윤식_비인용	김윤식_인용	김윤식_인용 비율	
1940년대 이전	14 (0.1%)	(표본 부족)			
1940년대생	181 (1.6%)	147	34	18.8%	
1950년대생	1,285(11.5%)	1,058	227	17.7%	
1960년대생	4,217(37.9%)	<b>3,578</b>	<b>639</b>	<b>15.2%</b>	
1970년대생	4,312(38.7%)	3,501	811	18.8%	
1980년대생	1,081 (9.7%)	<b>847</b>	<b>234</b>	<b>21.6%</b>	
1990년대 이후	48 (0.4%)	34	14	29.2%	
합계	11,138(100%)	9,165	1,959	17.6%	

〈표 8〉에 따르면 현대문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한 세대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으로, 두 세대가 합쳐 약 76%의 논문을 생산했다. 1960,70년대생이 논문 출판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문학 분야 전체에서 확인되는 현상으로,<sup>31)</sup> 현대문학분야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다만 인문학 분야 전체에서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1960년대생들이 1970년대생들보다 더 많은 논문을 출판했던 것으로 나오는 반면, 현대문학분야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1970년대생 연구자들의 논문 계재량이 1960년대생 연구자들의 논문 계재량보다 우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이한 지점이다 (〈그림 7〉). 현대문학분야를 포함한 국어국문학 분야가 여타 분과학문에 비해 서는 비교적 원활한 세대교체를 해갔던 게 아닌가 한다. 물론 1970년대생 연구자들이 소위 논문 양산 시스템에 진입한 첫 세대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1960년대생 연구자와 1970년대생 연구자는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하느냐의 여부 문제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1960년대생 연구자가 쓴 논문 중에 서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이다. 이는 전 세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1960년대생 연구자의 수가 가장 많은 만큼 1960년대생 연구자가 다루는 주제가 가장 다양해서일까? 아니면 양과 질 두 차원에서 현대문학 아카데미즘을 본격적으로 수립해간 세대로서 이전 세대에

31) Kim, Byungjun, "Mapp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humanities: Bibliographic data analysis of humanities journal articles in the Korea citation index, 2004~2019",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22, p. 67.

속하는 김윤식에게 일정한 대타의식을 지닌 연구자가 많았던 것일까? 하지만 1960년대생과 규모가 비슷한 1970년대생 연구자들은 1960년대생 연구자보다는 다른 세대 연구자에 더 가까운 인용 비율을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생 연구자들이 다른 세대 연구자들에 비해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김윤식의 저술을 ‘덜’ 인용하는 세대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단순한 세대간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않을까? 하지만 연구자의 세대가 인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1960년 대생’이라는 요소가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text{Chi-square}=38.5$ ,  $p\text{-value}=2.9e-07$ ,  $df=5$ ). 상술했듯 카이제곱 검정은 3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투입했을 때 두 개의 변수 쌍끼리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본페로니 교정으로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6개의 세대를 2개의 쌍으로 묶어 총 15개의 쌍을 만들어 본페로니 교정으로 김윤식 인용 여부와의 연관을 검정하였다. 15개의 조합에서 2개의 조합(연변 10, 11번)만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연구자가 설계한 가설)을 채택하였다(<표 9>, 유의수준 0.01).

<표 9> 김윤식 저술에 연구자의 세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페로니 교정

연변	세대 쌍	original p-value	corrected p-value	귀무가설
1	(‘40년대생’, ‘50년대생’)	0.791	1.000	채택
2	(‘40년대생’, ‘60년대생’)	0.221	1.000	채택
3	(‘40년대생’, ‘70년대생’)	1.000	1.000	채택
4	(‘40년대생’, ‘80년대생’)	0.439	1.000	채택
5	(‘40년대생’, ‘90년생 이후’)	0.170	1.000	채택
6	(‘50년대생’, ‘60년대생’)	0.033	0.508	채택
7	(‘50년대생’, ‘70년대생’)	0.376	1.000	채택
8	(‘50년대생’, ‘80년대생’)	0.017	0.257	채택
9	(‘50년대생’, ‘90년생 이후’)	0.065	0.982	채택
10	(‘60년대생’, ‘70년대생’)	<b>0.000</b>	<b>0.000</b>	<b>기각</b>
11	(‘60년대생’, ‘80년대생’)	<b>0.000</b>	<b>0.000</b>	<b>기각</b>
12	(‘60년대생’, ‘90년생 이후’)	0.013	0.197	채택
13	(‘70년대생’, ‘80년대생’)	0.038	0.579	채택
14	(‘70년대생’, ‘90년생 이후’)	0.101	1.000	채택
15	(‘80년대생’, ‘90년생 이후’)	0.292	1.000	채택

이상의 결과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그리고 1960년대생과 1980년 대생 사이에 김윤식 인용 여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1960년대생의 특이성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 사이에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또한 주목 해야 할 지점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조사 대상 중 가장 젊은 세대인 1980,90년대생들이 그 앞선 세대들보다 김윤식을 더 적극적으로 인용하였다는 것이다. 김윤식 저술의 피인용 빈도가 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학문후속세대 내에서 김윤식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김윤식 저술의 세대별 인용 경향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세대별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술의 순위를 산출했다. <표 10>, <표 11>은 그 결과표이다.

<표 10> 1950,60년대생 연구자의 김윤식 저술 인용 빈도

순 위	1950년대생		1960년대생	
	저술	빈도	저술	빈도
1	이광수와 그의 시대	37	한국소설사	67
2	한국소설사	26	이광수와 그의 시대	55
3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16	한국문학사	48
4	염상섭 연구	15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37
5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12	임화연구	32
6	한국문학사	12	염상섭 연구	29
7	한국근대문학사상사	10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25
8	이상문학전집 2	9	이상연구	22
9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7	한국현대시론비판	16
10	이상문학전집 3	7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16
			한국현대문학사	16

〈표 11〉 1970,80년대생 연구자의 김윤식 저술 인용 빈도

순위	1970년대생		1980년대생	
	저술	빈도	저술	빈도
1	한국소설사	76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26
2	이광수와 그의 시대	56	염상섭 연구	24
3	한국문학사	56	한국문학사	16
4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53	이광수와 그의 시대	14
5	염상섭연구	50	한국소설사	14
6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28	한국근대문학사상사	11
7	한국근대문학사상사	26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10
8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22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9
9	김동인 연구	21	해방 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화 글쓰기론	9
10	임화연구	21	임화연구	9

편의상 빈도수를 함께 표기하기는 했지만, 각 세대별 표본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빈도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보다는 세대별 인용 순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상위 10위에 오른 저술의 면면 자체는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몇 가지 독특한 순위 변동을 보여준 저술들이 확인된다. 가령 『이광수와 그의 시대』는 김윤식의 단독 저술 중에서는 1950~1970년대생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술이었지만, 1980년대생 연구자에게는 훨씬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역으로 1980년대생 연구자들이 『이광수와 그의 시대』보다 더 선호했던 『염상섭 연구』는 그 이전 세대 사이에서는 그 정도로 높게 선호되지는 않는 저술이었다.

그 외에 ‘김윤식의 저술에 가장 적은 관심을 보였던’ 1960년대생 연구자들이 유독 높은 관심을 보였던 저술도 있다. 『임화연구』와 『이상연구』는 1960년대생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저술이다. 『임화연구』는 월·납북 작가에 대한 연구가 해금된 이후에 제출된 여러 카프 연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임화 연구』는 “(1987년 이후의) 저항적/해방적인 열기와 동떨어져” 당대의 ‘진보적’ 국문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되는 저술이기도 하다.<sup>32)</sup> 하지

32) 전철희, 「운명과의 만남: 김윤식의 임화론에 대한 몇 가지 주석」, 『동아시아 문화연구』 7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2~3쪽.

만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상황 속에 서『임회연구』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세대는 다름 아닌 1960년대생들이었다. 앞서 말했듯 1960년대생들은 87년 체제와 해금의 충격이 현대문학분과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학계에 진입했던 세대이며,<sup>33)</sup> 당시 그들이 접했던 카프문학 연구를 2010년대에도 지속했던 세대이다. 이들이 현재까지도 『임회연구』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4.2. 성별: 폐미니즘 리부트와 김윤식

앞서 말했듯 현대문학분과라는 제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 변화는 연구 영역의 외연 확장을 통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폐미니즘적 시각을 적용한 연구의 증가에 따른 질적 변화를 통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한국문학사를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자주 이루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5년을 전후한 폐미니즘 리부트에 호응하여 형성된 것으로,<sup>34)</sup> 기존의 정전적 문학사 서술에 대한 전복을 표방했다는 점에서는 ‘여성문학사’ 서술을 목표로 했던 종래의 여성문학운동과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다.<sup>35)</sup>

그런데 김윤식 저술의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폐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은 김윤식식(式) 문학사 서술의 취약점 혹은 난관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식은 같은 세대의 어느(남성) 비평가들보다도 여성 작가들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주목한 여성 작가를 자신의 문학사 서술 속에 배치하는 데에는 늘 곤란을 겪어왔다. 김윤식이 강석경, 김채원, 박완서, 박경리, 서영은, 오정희 등 여성 작가들을 평할 때 그들의 개성이나 배경 차이를 불문하고 거의 같은 평가를 반복했다는 것은 김윤식의 문학사론 혹은 작가비평이 여성 작가들과 잘 맞지 않는 지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겠다.<sup>36)</sup> 그렇다면 폐미니즘 리부트

33) 유임하, 「해금조치 30년과 근대문학사의 복원」, 『반교어문연구』 50, 반교어문학회, 2018, 82~83쪽.

34) 손희경, 『폐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35) 김양선, 「폐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의 여성문학 앤솔러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5, 한국여성문학회, 2022, 87쪽.

이후 한국문학사 서술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의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문하게 된 연구자들에게도 김윤식이 절대적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이 논문은 폐미니즘 리부트의 충격이 학술장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 논문은 연구자의 성별에 따른 김윤식 인용 빈도의 차이(특히 연도별 차이), 남성 연구자와 여성 연구자가 주로 인용하는 김윤식 저술의 차이 등을 통해 간접적인 경향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물론 연구자의 성별 차이가 김윤식 저술의 인용 여부나 그 형태를 좌우하는 변수이리라는 것은 그리 정교한 가설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이런 단순한 데이터에서조차 경향성이 확인되지 못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표 12〉 연구자의 성별에 따른 김윤식 인용 빈도의 차이

성별	계재량	김윤식_비인용	김윤식_인용	김윤식 인용 비율
남성	5,927(51.9%)	4,785	1,142	19.3%
여성	5,271(48.1%)	4,435	836	15.9%
통합	11,198	9,220	1,978	17.7%

우리가 확인한 38종의 학술지 중에서 KCI를 통해 저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논문은 총 11,198편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 연구자가 쓴 논문이 51.9%로 여성 연구자의 논문보다 3.8%p 가량 많았다(〈표 12〉). 또한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남성 연구자의 19.3%, 여성 연구자의 15.9%가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에 따르면 연구자의 성별은 김윤식 인용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다( $\text{Chi-square}=22.0$ ,  $p\text{-value}=2.7e-06$ ,  $df=1$ ).

36) 황호덕, 「김윤식의 문학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론과 젠더 트리블: 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실마리로」,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164~165쪽.

〈표 13〉 성별에 따른 김윤식 저술 인용 빈도 순위

연 번	남성 연구자		여성 연구자	
	저작	빈도	저작	빈도
1	한국소설사	122	이광수와 그의 시대	74
2	이광수와 그의 시대	107	한국소설사	64
3	한국문학사	92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53
4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85	한국문학사	46
5	염상섭 연구	76	염상섭 연구	43
6	한국근대문학사상사	51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32
7	임화연구	38	임화연구	26
8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36	이상연구	25
9	김동인 연구	32	한국현대문학사	22
10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32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21
11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32		
합계		703	합계	406

남성 연구자가 주로 인용하는 저술과 여성 연구자가 주로 인용하는 저술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은 조사기간(2008~2019) 동안 누적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체 논문 게재량을 연도별로 분절하여 보면 조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 따르면 남성 연구자가 출판하는 논문과 여성 연구자가 출판하는 논문의 양적 격차는 2010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더 많은 논문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또한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의 출판 추이를 연도별로 확인하면 여성 연구자가 김윤식의 저술을 덜 인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그리고 2015년 이후 그 경향이 현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인용자의 성별에 따른 단순 빈도 변화는 비교적 완만한 것이었다(<그림 8>). 하지만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 9>에서는 훨씬 더 급격한 변화가 확인된다. 일단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을 여성 연구자들이 남성 연구자들 만큼 쓰지 않는 현상 자체는 거의 꾸준히 지속되었다. 다만 2010, 2015, 2017년 일부 구간에서 예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010년과 2017년에는 갑

자기 여성 연구자들이 쓴 논문의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듬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였고, 2015년에는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을 여성 연구자들이 남성 연구자들보다 더 많이 쓰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2015년 이후 여성 연구자들이 쓰는 논문이 남성 연구자들이 쓰는 논문보다 현대문학계 전체에서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 중에서 여성 연구자가 쓴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15년 이전의 연구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림 9>에서도 2015년 이후의 그래프에서 여성 연구자 쪽 선이 남성 연구자 쪽 선보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림 9>에서 실제로 그려진 그래프는 여성 연구자들이 김윤식의 저술을 덜, 그것도 2015년 이전보다도 훨씬 덜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우리는 <그림 3>, <그림 4>에 대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참고문헌으로서 단행본의 인용 빈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에도 김윤식의 저술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그림 8>, <그림 9>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남성 연구자들이 여성 연구자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다.

2015년은 폐미니즘 백래시의 원년이며,<sup>37)</sup>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가동된 ‘폐미니즘 리부트’의 원년이기도 하다. 어쩌면 2015년에 한정된 여성 연구자들의 김윤식 인용 폭증은 “남성 중심의 문학장에서 ‘보편적인’, ‘남성중심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것들”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sup>38)</sup> 그렇다면 2015년 이후 김윤식 저술 인용의 현저한 감소는? ‘김윤식 아닌 것’으로 나아감으로써 ‘비(非)김윤식일 수 없는 자’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일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해석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여성 연구자의 논문 836편, 혹은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하지 않은 논문 4,435편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연구자의

37) 허윤, 「폐미니즘 2.0」,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453쪽.

38) 김양선, 「폐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의 여성문학 앤솔러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5, 한국여성문학회, 2022, 91쪽.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리고 2015년이라는 시간의 경험에 김윤식 저술의 인용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5. 차후의 과제: 현대문학 학술장의 성좌 그리기

이 논문에서 우리는 현대문학 학지 생산의 네트워크를 그려내기 위하여 김윤식을 중심점으로 한 밑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김윤식의 저작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저술이 무엇인가(『이광수와 그의 시대』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김윤식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연구자는 어떤 연구자인가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김윤식 저술은 대부분 그가 1970,80년대에 출간했던 저술들이다. 다만 1970,80년대에 제출된 저술들을 인용할 때도 김윤식의 견해를 인용한다기보다는 김윤식의 저술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문학사적 사실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것은 김윤식의 연구가 실증 연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는 차후의 다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으로 받아들여질 지점은 김윤식의 저술을 ‘누가’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현대문학분과 계열 논문 출판의 가장 중요한 세대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생(n86세대)은 김윤식의 저술을 예외적으로 적게 인용한 세대였으며, 1960년대생의 후속 세대로 갈수록 김윤식 저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1980,90년대생의 경우 (적어도 2010년대 초중반에는) 그들의 기성세대에 비교할 만큼 논문 출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에 ‘논문을 출간할 수 있는’ 특정한 배경의 1980,90년대생의 경험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1970년대생과의 비교에서도 김윤식 인용 빈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또한 이 와중에 본래도 남성 연구자들에 비해 김윤식의 저술을 덜 인용하는 편이었던 여성 연구자들이 2015년 이후에는 훨씬 더 급격하게 김윤식의 저술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는 것도 특기할 지점이다.

다만 논문의 서두에서 밝혔던 것과 같은, 김윤식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무언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 이어질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김윤식의 어떤 저작이 얼마나 인용되었느냐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결국에는 김윤식의 저작을 인용한 논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인용의 양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김윤식의 저술을 인용한 논문들의 상호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식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개별적인 지식 생산이 아니라 그 지식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체계를 통해 집단적 담론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sup>39)</sup> 이는 논문을 통한 저술 활동의 결과가 재생산 가능한 지식의 생산 및 유통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김윤식을 대상으로 밝힌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김윤식을 매개 혹은 중심으로 하여 어떤 연구자들이 응집되었느냐의 문제이며, 그들이 김윤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김윤식의 학술적 영향력이란 김윤식을 매개로 하여 모인 연구자들이 김윤식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활용의 네트워크가 유의미한 학술사적 변동을 만들어내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별 연구자들이 김윤식을 어떻게 인용했느냐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김윤식을 인용한 연구자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김윤식을 인용했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즉 김윤식을 매개로 하는 담론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차후의 논문에서는 국문학 연구자들이 김윤식의 저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작업은 본 연

---

39) 이시윤은 1990년대 말에 일어났던 하버마스 붐이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났던 것을 분석하면서, 하버마스 연구자들이 하버마스를 매개로 한 ‘한국 하버마스 연구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실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당시 한국 연구자들의 하버마스 관련 작업(번역, 인용, 참조, 연구 등)은 대개 개인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구자들의 작업에 관심을 가졌던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하버마스 연구자들이 하버마스 붐이 꺼진 이후 하버마스 연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이시윤, 『하버마스 스캔들: 화려한 실패의 지식사회학』, 파이돈, 2022, 제5부 참조.

구에서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제 밀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을 대상으로 했던 작업과 같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김윤식의 저술을 활용한 논문들이 어떤 연구 경향을 만들어내았는가(혹은 만들어내지 못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차후에는 김윤식을 인용한 논문 간의 관계도, 즉 김윤식을 매개로 한 국문학 담론의 성좌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이는 다음 논문의 과제로 남겨놓는다.

## | 참고문헌

### <자료>

『겨레어문학』, 『구보학보』, 『국문학연구』, 『국어국문학』, 『국어문학』, 『국제어문』, 『돈암어문학』, 『동남어문논집』, 『동악어문학』, 『민족문학사연구』, 『반교어문연구』, 『배달말』, 『비평과이론』, 『비평문학』, 『사이間SAL』, 『상허학보』,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어문론집』, 『여성문학연구』, 『우리말글』, 『우리문학연구』, 『우리어문연구』, 『이화어문논집』, 『청람어문교육』, 『춘원연구학보』,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민족문화』,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화』, 『한국현대문학연구』,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화)』, 『현대문학의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소설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po/openapi/openApilist.kci>

### <단행본>

- 김윤식, 『김윤식 서문집』,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김윤식,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 푸른사상, 2014.  
김윤식, 『백철 연구: 한없이 지루한 글쓰기, 참을 수 없이 조급한 글쓰기』, 소명출판, 2008.  
백종섭 · 박병식 · 김태수, 『국내외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이시윤, 『하버마스 스캔들: 화려한 실패의 지식사회학』, 파이돈, 2022.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카를 만하임, 이남석 역, 『세대 문제』, 책세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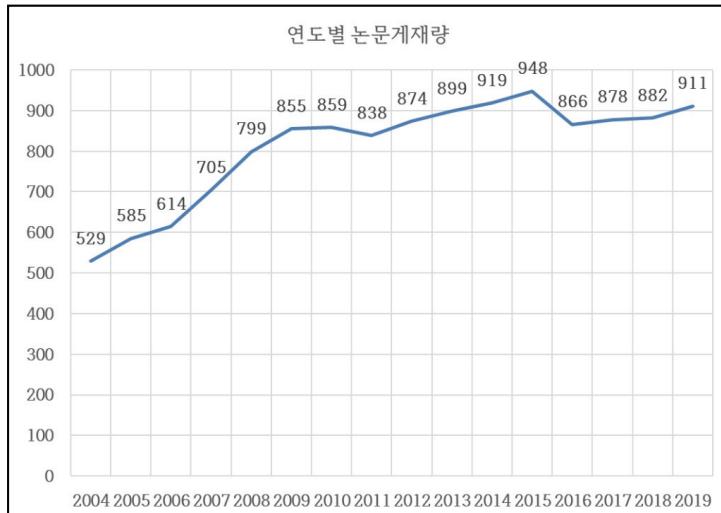
### <논문>

- 강용훈,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의 변화 양상과 또 다른 문학/비평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 72,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강진호, 「문학과 사회, 그리고 문학연구: 상허학회 20주년과 국문학 연구」, 『상허학보』 37, 상허학회, 2013.  
권수빈, 「청년세대 연구에 지역이라는 교차로 놓기: '지방대학생/지방청년'에 관한 학술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7-4,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김경수, 「김윤식의 『김동인 연구』가 놓인 자리」,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김동식, 「당만주의 · 경성제국대학 · 이중어 글쓰기: 김윤식의 최재서 연구에 대한 몇 개의 주석」,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김동식, 「비평사의 유혹과 글쓰기의 이미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감상」, 『쉬플레망 상허』, 상허학회, 2012.  
김민수, 「문학」에서 '글쓰기'로: 김윤식의 '글쓰기론 3부작'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구보학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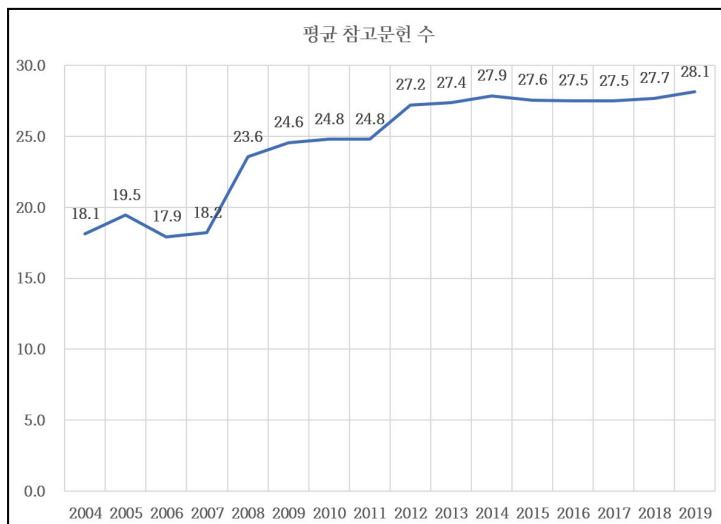
- 구보학회, 2019.
- Kim, Byungjun, "Mapp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humanities: Bibliographic data analysis of humanities journal articles in the Korea citation index, 2004~2019,"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22.
- 김병준·천정환,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 김양선,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의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5, 한국여성문학회, 2022.
- 김예리, 「방법으로서의 이상: 김윤식의 이상 문학 연구에 대하여」,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 김용수, 「한국 영문학 비평 이론의 지형도: 인용문헌 연결망 분석과 <비평과 이론>의 20년(1996~2015)」, 『비평과 이론』 27-1, 한국비평이론학회, 2022.
- 김용학·김영진·김영석, 「한국 언론학 분야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보』 52-1, 2008.
- 문홍술, 「의미인의 문학사, 그 체계와 의의: 김윤식의 문학사 연구에 대하여」,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 서영채, 「커다란 너털웃음도 따뜻한 미소도 아닌」, 『문학동네』 98, 문학동네, 2019.
- 신재기, 「김윤식의 수필론 연구」, 『국학연구론총』 24, 택민국학연구원, 2019.
-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혁재성」,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회, 2019.
- 유임하, 「해금조치 30년과 근대문학사의 복원」, 『반교어문연구』 50, 반교어문학회, 2018.
- 유현재·김현우, 「조선후기 서울 주택가격 변동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 윤영실, 「일제말기 이중어 글쓰기와 탈식민·탈민족의 아포리아: 김윤식의 이중어글쓰기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이도연, 「비평사의 연구 방법과 과제: 김윤식의 비평사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 이원재·김병준, 「20대와 50대의 단절과 전승: 1980~2019 한국의 현대문학 연구 텍스트 분석」, 『한국 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6-24, 2020.
- 이재연, 「논문 제목과 주제어의 공기어 네트워크로 본 『상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 임진영, 「작가연구의 대상과 방법 문제: 김윤식의 작가연구를 중심으로 한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 장문석, 「상흔과 극복: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민족문학연구』 5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 장문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의 학술사적 의의를 묻다」,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 장세진, 「냉전(사)의 세계 시간과 지금·여기의 문화연구: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발(發) ‘냉전문화’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 장충덕, 「청주지역에 체언 어간말 자음 교체의 사회적 변이」,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2015.
- 전철희, 「운명과의 만남: 김윤식의 임화론에 대한 몇 가지 주석」, 『동아시아 문화연구』 7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 조남현, 「한국현대문학연구의 발전과 과제」, 『국어국문학』 184, 국어국문학회, 2018.
- 최현희, 「사상의 통국가성: 2000년대 이후 김윤식의 한국근대문학론」,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 허윤, 「페미니즘 2.0」,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황호덕, 「김윤식 비평과 문학사론: 총체성과 가치중립성 사이」,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 황호덕, 「김윤식의 문학의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와 젠더트러블: 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살펴보자」,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지도·수령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 Cronin, B., & Meho, L. I. "Receiving the French: A bibliometric snapshot of the impact of 'French theory' on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5(4), 2009.
- Dewey, S. H. "Foucault's toolbox: Use of Foucault's writings in LIS journal literature, 1990–2016." *Journal of Documentation*, 76(3), 2020.
- Newman, M.E.J. "Power laws, Pareto distributions and Zipf's law," *Contemporary Physics*, 46, 2005.
- Weisstein, E. W. (2004). Bonferroni correction. <https://mathworld.wolfr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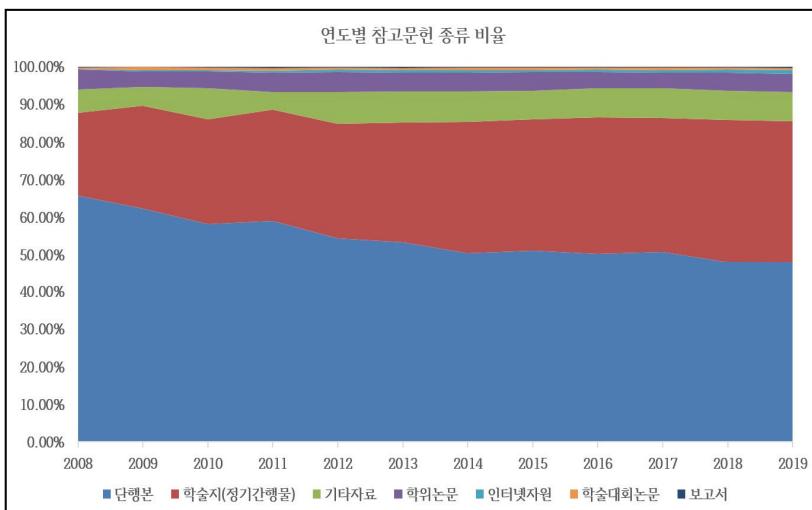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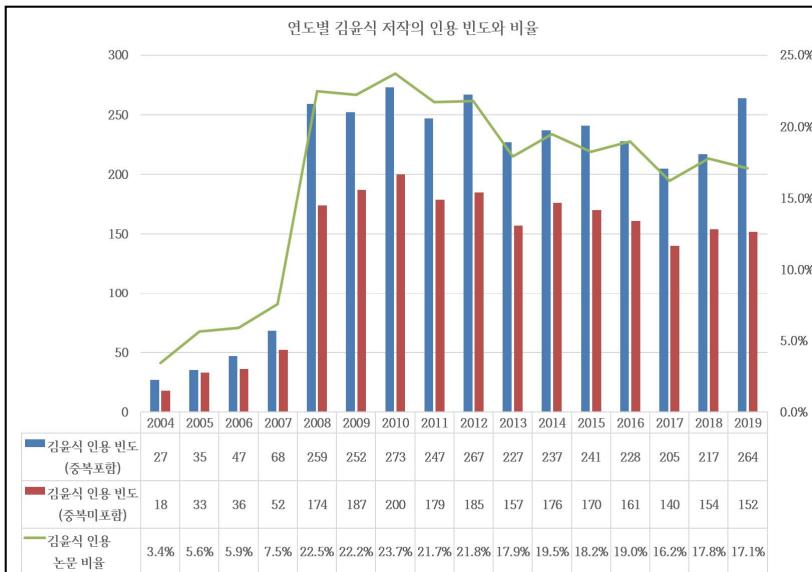
〈그림 1〉 현대문학 논문의 연도별 게재량



〈그림 2〉 현대문학분과 논문의 평균 참고문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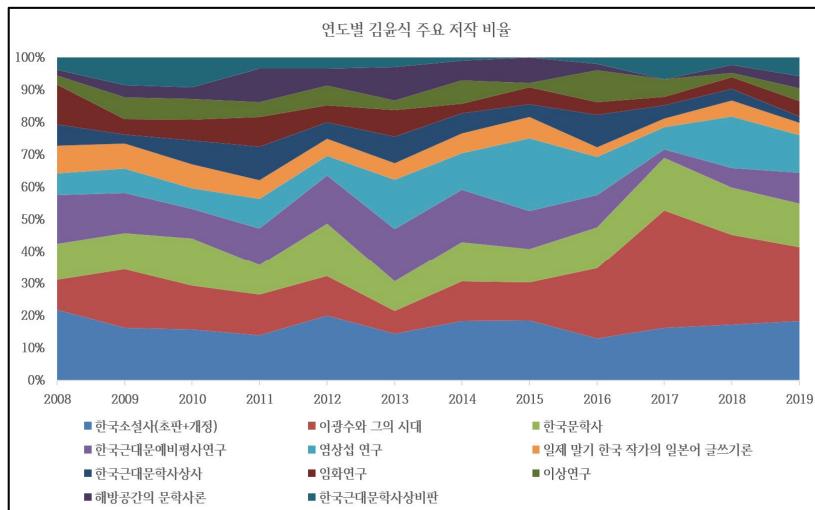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참고문현 종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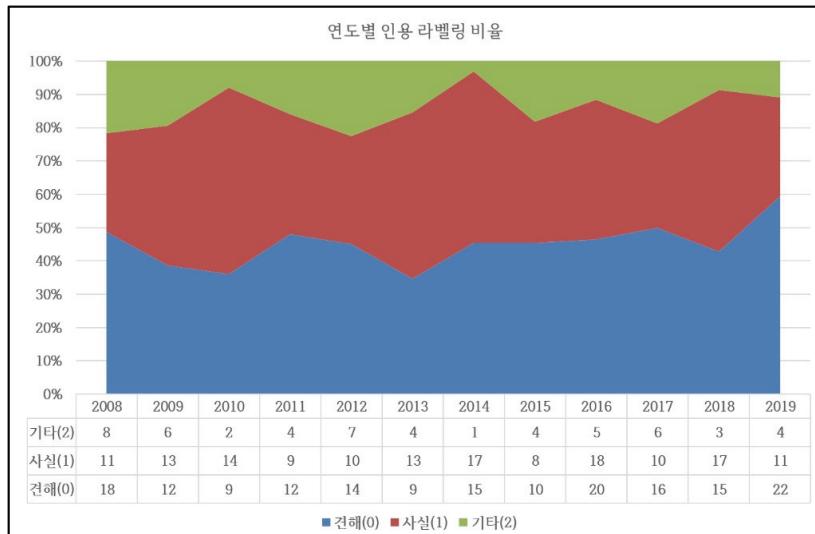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김윤식 저작의 인용 빈도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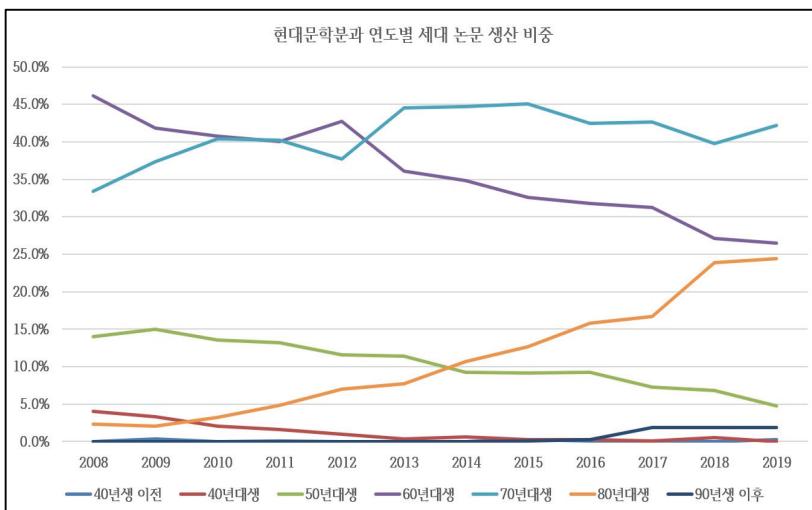
342 국제어문 96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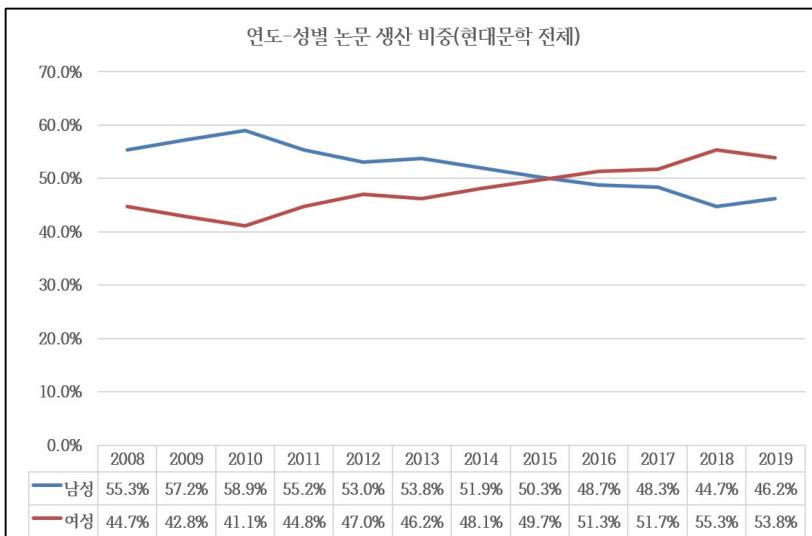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김윤식 주요 저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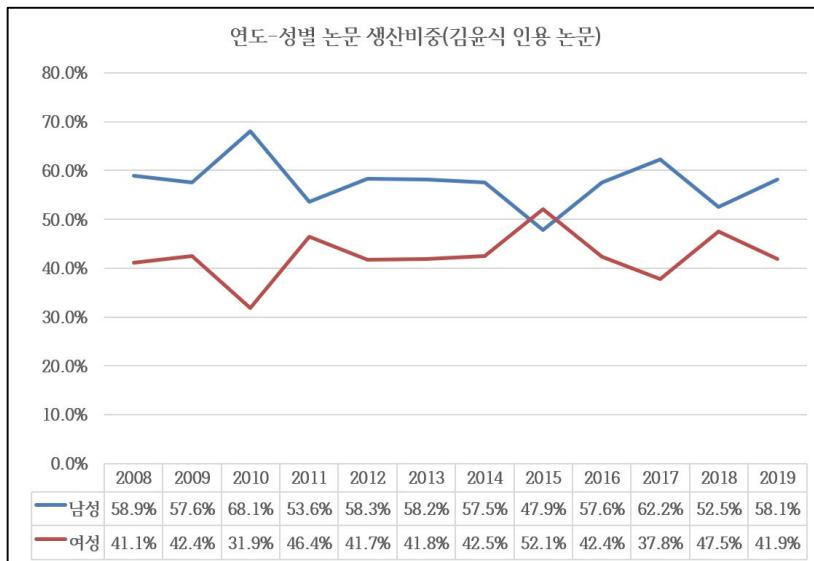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인용 라벨링 비율



〈그림 7〉 현대문학분과 연도별 세대 논문 생산 비중



〈그림 8〉 연도-성별 논문 생산비중(현대문학 전체)



〈그림 9〉 연도-성별 논문 생산비중(김윤식 인용 논문)

## Kim Yunsik and Our Epoch, A Demographic Viewpoint of Citation

- Korean Modern Literature Researchers' Citation Patterns of Kim Yunsik's Writings by Gender and Generation, 2004-2019

-

Choi, Jin-seok<sup>\*</sup> · Kim, Byung-jun<sup>\*\*</sup> · Huh, Ye-sel<sup>\*\*\*</sup>  
Choi, Joo-chan<sup>\*\*\*\*</sup> · Hwang, Ho-duk<sup>\*\*\*\*\*</sup>

This thesis aims to examine citation practices and the use of Kim Yoonsik's texts in theses on modern literature. Although Kim Yoonsik has primarily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reviews of his individual works, a review of his academic accomplishments as a Korean scholar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cholarly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By examining the works that reference Kim Yoonsik's writings, this thesis seeks to demonstrate the acceptance of his works in the Korean literary world after the mid-2000s. In doing so, this thesis addresses three key concerns: which of his writings were most frequently referenced, who most frequently cited his writings, and how were his works cited.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we created a reference bibliography of 38 journals on modern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19, which was then evaluated.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Kim Yoonsik's works published in the 1970s and

---

\* Sungkyunkwan University.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

1980s were the most frequently referenced publications. Second, younger scholars tended to reference Kim Yoonsik's writings more frequently, except for those born in the 1960s, who had a particularly low tendency to do so. Third, it was observed that male scholars and those wh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more likely to cite Kim Yoonsik's works. After the Feminism Reboot in 2015, the number of citations from female researchers dramatically decreased.

[Key words] Korean Modern Literature, Kim Yoonsik, Scholarly history, Digital Humanities,  
Chi-squared test, KCI

이 논문은 2월 16일 접수되어 3월 5일 1차 심사를 거쳐  
3월 10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필자 정보〉

성명: 최진석/허예슬/최주찬/황호덕/김병준

소속: 성균관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메일: gkman1@hanmail.net